

◆머느리권씨열전 3 - 권수환

전주 류씨 류동목(柳東穆,전주유씨,수곡파 21세)선생의 부인

내방가사 사향가思鄉歌 작가 권수환(權壽煥,36세,별장공파)

류동목(柳東穆, 전주류씨, 직제공파, 수곡파21세)선생의 부인 권수환(權壽煥, 36세, 별장공파, 1914.4.20~2008.10.15) 여사는 수곡(水谷,무실)파의 반 천년 세거지가 임하댐으로 수몰이 된 후 1986(병인)년 선산으로 이주하면서 내방가사로 지은 것이 사향가(思鄉歌)로서 이는 앞으로 '미래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

여사의 부친은 권상락(權相洛, 35세, 별장공파 태정계泰精系, 1896- ?) 이고 모친은 한양 조씨 조언장(趙彦璋)의 딸(1892-1972)이다.

슬하에 류승번(柳昇蕃, 새마을체육회사무처장, 출판업, 前전주류씨대종회장), 류혁번(柳赫蕃,코오롱기술부), 류혜번(柳惠蕃,농업), 류춘번(柳春蕃, 공학박사, 경기대공대학장, 대학원장), 류만번(구미거주), 조가 류상번(경상북도 부교육감), 류영번(충무처 이사관, 대전청사관리소장), 손자 4명, 손녀 10명이다. 동생은 권인환(權仁煥)이고 조카로 권재형(權在亨, 송의여고교사), 권재철(權在鐵, 초대 고양정보원장)이 있다. 모두 하나같이 훌륭한 인재로 길러냈다.

여사의 부친 권상락은 권우영(權佑永,34세)의 친생자이고 숙부 권옥영(權旭永,34세)의 양자이다. 그 위 조상으로 벼슬하는 사람은 6대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나온다. 30세 권건중(權建中, 호 수백재守百齋,1742년생, 효孝로서 칭예), 29세 권국관(權國觀, 수직첨지중추 3품계급), 28세 권후(權瓚,통덕랑 정5품), 26세 권세진(權世鎭,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龍驤衛副護軍), 25세 권태정(權泰精, 승의랑 정6품, 문행文行으로 시고詩稿를 남김)정도이다.

‘사향가’는 구구절절 수물민의 아픔을 담고 있다. 정신문화의 수도 추모지향 안동의 절경과 조상의 유산들이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사라진 것은 민족 문화 유산의 절멸과 함께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지금 영주댐까지 겹쳐서 금모래, 은모래 내성천의 그 맑은 물도 회룡포의 그 절경도 잡초 속에 사라져 갈 지경이고 안동댐은 그 석포제련으로 오염된 물고기 하며 임하댐 도연폭포의 절경 그리고 그 맑은 스토리텔링의 무형의 유산들은 수없이 많아서 하회마을을 10여개가 없어진 거와 같다고 한다.

주변에 안동댐 수몰로 임하로 가니 다시 수몰돼서 두 번의 실향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고 이북이 고향이면 그래도 가본다는 희망도 있으나 몰속에 사라져버린 고향은 영영 길 잃고 없고 언제나 극한 가뭄에 드러난 마을 길을 부라부라 가서 그 흔적을 보고 더더욱 목매어하던 걸 보니 월곡 궁구리가 큰 집인 기자도 그 몇 번의 추억이 한없이 그리운데 오직할까 생각하니 숙연해진다.

권 여사의 글은 내방가사 형식으로 평생 마음을 담으며 들으며 외어온 진실한 내용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읊어 나가는 것이 특색이다. 비록 고문체 문구가 몇 군데 있어서 현대인이 읽기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래도 그 절절한 마음은 진실로 가득하니 몰라도 알 듯하다. 밑에 짧게 글을 답아서 이해를 도우려고 했으나 원문을 보시고 이는 그저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정든 땅을 떠나며 그 비통함과 또 새 땅에서의 희망을 애써 찾으려는 팔십 할머니의 심정은 지극히 애처롭기도 하지만 류씨와 안동 양반이라는 기개를 느낄 수 있으나 역시 다시 또 애끓는 심사로 돌아가 한숨으로 마무리한은 어쩔 수가 없다.

사향가(思鄉歌)

권수환(權壽煥)

태백산 주봉으로/아기산 조봉 놓고/비봉산이 주산되고/대평이라 칭호 붙여/촌락을 흥성하여친추만세 유복지로/조상님께 전수 받아/문화 창립 사백여 년/기수영창 하을작에/인물로 유명하고/문필도 향상이오/여차타인 부러하고세/명산 명기 발복 받아/응천상지 삼광이오/비인간지 오복이라/남훈여가 좋은 풍속/계래유평 풍은 법은/일조의 타결이라/척층이 척지하니 지기척고/두선이 두천하니 천기두라/장엄한 우리 무실/이모양 이 풀 뿔 줄/천신이나 알았을까/

태백산 정기의 산 좋고 물 맑은 이 천하의 복된 곳에 사백 년의 전통으로 인물이 많이 나고 풍습도 좋던 이 무실마을이 이 지경으로 몰속에 들어갈 사정이니 이리될

사향가
이백산 주봉으로
태백산이 조봉되고
대평이라 칭호 붙여
촌락을 흥성하여
친추만세 유복지로
조상님께 전수받아
문화창립사백여년
기수영창하을작에
인물로 유명하고
문필도 향상이오
여차타인부러하고
명산명기발복받아
응천상지삼광이오
비인간지오복이라
남훈여가좋은
풍속계래유평
풍은법은
일조의타결이라
척층이척지하니
지기척고
두선이두천하니
천기두라
장엄한우리
무실이모양
이풀뿔줄
천신이나
알았을까
태백산정기
의산 좋고
물 맑은
이천하의
복된 곳에
사백년
전통으로
인물이
많이 나고
풍습도
좋은
이무실
마을이
이
지경으로
몰속에
들
어
갈
사
정
니
이
리
될



손자 류천호, 부군 유동목 선생, 작가 권수환 여사(왼쪽부터)

줄 하늘인들 알았겠나

무실을 건너보니/명탄한 상하촌에/장유수 맑은 냇가/독야청청 푸른 공원/사백여 년 역사 속에/세덕사 뒤편 놓고/춘추로 향사치고/열려표창정려비 각/(숙인 김씨 시조 할매)/상하촌 중심으로/자손을 감싸시니/금상철화 아니 신가/금약 같은 후손오로/만세 안향 바랐드니/문화개발 애통하다/조물주가 마련 해논/천지도 변모되니/인심도 변해진다/애통한들 쓸 데 있나/

맑고 아름다운 무실 400년 역사에 세덕사에 제사지내고 열녀와 충신이 즐비하고 자손들과 만년을 누리자니 개발 바람에 하느님이 만든 땅도 이리되니 인심도 변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

앞뒤 강산 좋은 명산/조상부모 뒤편 놓고/자자손손 후손들이/무쇠 목숨 돌근 달아/천수가 다하도 록/호가사 좋은 제택/오복이 영창이라/남친 옥답 좋은 농지/눈에 익고 밭에 밭혀/흙 한줌 나무 한줄/무엇인들 허수할까/원장안에 온갖 과일/매맞춰 익는 모양/만정을 붙쳤드니/꿈이라도 흥몽일세/수마가 활켜가도/분하고 아까운 땅/금수강산 우리마을/용왕국이 웬말이오/앞뒤 강산 진달래꽃/냇가에 수양버들/봄바람에 휘 날린다/

좋은 산에 조상 모시고 무쇠처럼 오복을 누리고 싶은데 문진옥답, 과일나무 온갖 것이 다든 곳 수마가 삼키니 분하고도 금수강산 용왕국이 웬말이요. 진달래꽃 수양버들 봄바람에 날리누나.

살기 좋은 이 고향을/미사전 잊으리까/고향은 묻지 마소/고향이 그리워도/다시 못을 우리고향/동기 증반 친척들이/웅기증기 모여 살며/좋은일 굶은일에/서로 동정 아껴가며/형우제공 동일호예/천만세 바랐드니/풍진 고락 만났으니/추풍에 낙엽처럼/방방곡곡 흐터질줄/몽중엔들 예측하리/삼가도 일촌이오/오가도 대동이라/여섯호 대소가이/누구를 부려 할까/안목은 여전하나/서로 환경 각기 달라/동서남북 갈라지니/구복이 원수로다/

고향을 죽기 전에 못 잊고 고향은 이제 없으니 묻지마라. 그 좋은 인심과 우애 이제 날벼락에 사라진다. 꿈엔들 알았으랴 대소가 모두 일가인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먹고사는 게 원수구랴

먹잔고 살갓드면/공원 하나 꾸며 놓고/친척이 다 모여서/히히 호호 즐기다가/백년 못살 인생들이/극락으로 함께 가지/친구 사정 뉘 알리오/이칠 이팔 만난 친구/백발에 생이 사별/친구가 남이려면/어찌 그리 유정하고/주야 상대 모여 앉아/땃칠 공론 아연 회포/자자 일촌 모여 살면/우리 동계 모든 단결/신년을 맞이하면/척사대회 상웃놀이/밤도 낮도 가리잡고/이집 먹고 저집 먹고/농담하고 회롱하고/안보면 보고파서/시간이 여삼차라/

생업이 아니면은 공원처럼 만들어서 모두 모여 웃으며 즐기다가 다같이 극락가지 청춘이 백발되어 생이별이 웬말이나 새해엔 웃놀이에 밤낮 없이 이집 저집 안보면 보고싶은 시간이 여삼추

이별시를 생각하며/진야 몸야 깨달지 못/노자 노자 젊어 노자/늙어지면 못 노나니/늬몰어린 보파리에/행선지는 어디든고/쫓겨가는 실향민이/낙원 찾아 어서 가자/고진감래 흥진비래/옛말에도 있나리라/실망 말고 단결하여/고군분투하게 되면/지금까지 좋은 세월/여디간들 못 사리까/단 보파리 찌서 들고/어린 자식 업고 안고/잔뎌 굶은 고향 산천/등지고 돌아 설제/조상 부모 가없어라/알음이 계신다면/어찌한들 보내리까/단지단지 숲 한단지/

헤어질 날 꿈인가 생시인가 늬몰어린 보파리 실향민

이 낙원 찾아 떠나네 실망말고 단결하여 힘쓰면 어디간들 못살리요 어린자식 업고 키운 내어찌 잊으리까 저 많은 단지들을 다 어쩔거나

어디 가서 사드라도/류가 본색 잃지 말고/제이고향 건설하여/자손 유림 또 합시다/쫓겨가는 신세라도/못 사라는 법은 없다/동기 증반 친척들이/같이 못가 유한이나/옛정분 잊지 마소/언제든지 단체하여/미사전 보사이다/한심하고 아연하다/밧고 곱고 친척이라/수양산 그늘 같다/밧다가도 고아진다/꿀육은 못 끊는다/한탄하면 쓸 데 있나/선조께서 터잡을 때/수곡이라 하셨으니/물 숫자 곱 곡자니/물담는 그릇이라/운수도 다 했도다/

류씨 본색 잊지말고 제이고향 건설하세 같이 다 못가지만 서로 정은 잊지 말고 죽기 전에 다시 보자. 밧든 곱든 수양산 그늘 같은 친척을 한탄하면 무엇하나 물 숫자 곱 곡자니 운수가 다했다.

오백여년 내려오는/추모지향 모르리까/가기 싫은 내 고향을/싫은 다시 물려 갈제/하늘이 정했는가/불시에 난을 만나/좌왕우왕 갈 곳 없이/동서남북 흩어질 때/조밥 이밥 헤아일까/땅 넓고 물 맑은 데/나라의 주선으로/선산 해평 명기 잡아/낙동강 칠백리에/산 넘고 물 건너니/고향은 아득하다/꿈이 굶이 돌아가니/일선고 다리 놓여/우리 살 곳 여기로다/일선자 다리 교차/마음에 감탄하다/제이고향 개발하니/승천임지 하오리다/명품 다리 터보이니/명망이 자자하다/

오백년 양반땅 내어이 모르리요. 하늘이 정한대로 운명으로 알고 국가가 준 땅 선산 해평리로 간다. 일선교 다리 놓고 이제 여기가 제이고향 힘써서 터를 닦아 일어 서세 명망있는 땅이란다.

죽은 범도 움직인다/아무리 여자라도/삶의 터를 안보리요/장님 같은 똑 눈에도/상하를 돌아보니/청용백호 준엄한데/장승이 울울창창/희초가 왕래하니/윤회할 길조로다/금오산이 안이 되고/간좌 곤항 터를보니/오봉이 우뚝 솟아/오복이 결비하다/구역도 좋을시고/문화재 기양서원/상좌에 뵈셨으니/산호 산호 재산호요/천세 천세 천천세라/문화재 호가 사를/궁전 같이 신축하고/문화주택 창건하여/자손만대 물려주고/분수를 알아 살자/

터를 보니 청룡백호 낙랑장승 길조가 날아다니 금오산이 안산이고 오봉이 우뚝하여 명당이니 기양서원 모시고 만만세 이어가자. 문화주택 창건하고 자손만대 이어가고 분수 켓 살아가자.

국내풍조 외국풍조/맛 안본 게 없었으니/아생 첫고 군지부와/일락 인간 만장수라/뉘를 위해 말했든가/고해 인생 길복에는/단물도 많은 계라/이사가 열한 번제/않는데로 켓 빠진다/육이오 난세 속에/풍진고락 다 넘기고/또 무슨 미련 남아/팔십줄 늙은 몸이/고향마저 잃어 뿌니/육사 육사 분한 마음/천사 만념 잠 못자고/어디가 정작하면/동서남북 사는 자식/길 멀까 걱정되고/도시로 가자하니/능력이 부족하다/아무리 좋다 한들/가기 싫은 내 고향을/

고해 같은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이사는 열한 번에 육이오 난세도 다 이겼느니 팔십에 고향마저 잃을 줄은 분해서 못살아 멀리 사는 자식 도시 갈 능력이 안돼 아무리 내고향만 할진가.

눈물로 떠나 갈제/형아 동생 서로 잡고/이별주를 권할 적에/경 소년이 다시 되어/낙원 찾아 다시 오소/문명이 원수로다/개발법 없었다면/이 풀은 안보리라/좌작한 이 심정을/아득하고 기 막혀서/질서도 전혀 없다/정이 들면 고향 뵈까/부귀는 돌고 돈다/시름을 달래가며/삼촌의 우리 친척/형제같이 합심하고/서로 동정 아껴 가며/무실 한들 박실이니/다 같은 자손으로/허물 말고 기탄없이/일심동체 결의하여/보람차게 살아보세/대복은 재천이요/소복은 재근이라/

눈물로 이별주 한잔 소년되어 낙원찾아 오라. 문명이 원수이니 개발법만 없었어도, 이 풀은 아늑했는데 돌고 도는 이 세상에 다 같은 자손들 합심하세 큰 복은 하늘이나 작은 복은 노력이다.

백사장 허허벌판/경지정리 다 했으니/생금이 생할지라/천신이 감응하사/재미고 부하는 진/사주에 있는지라/운회는 돌고 돌아/도시라고 다 좋을까/신선한 자유 속에/천하지 대본이라/양평 만정이라고/일식 이승이오/대와 천간이라고/야와 팔척이라/선현들이 말술했지/근검절약 알뜰하면/후회는 하지마자/단체하여 잘 살아서/서로 항상 조심하고/타향에 가서라도/안동 양반 양반이라/호평 듣고 잘 살시다/일곱 명도 단체하면/국경도 해결된다/

허허벌판 경지정리 돌고 도는 이 세상 도시라고 다 좋지는 않아 자유 속에 살아가세 만석꾼도 밥은 세끼, 대궐집도 늙는 데는 두 평이다. 안동 양반 전통 잊지 말고 나랏일도 단결하면 해결되니



도연폭포(陶淵瀑布) 반변천의 한 굽이에 배포된 절경으로 도연폭포, 격진령, 선유창벽이 유명하니 도연삼절(陶淵三絶)이라 한다. 기협한 바위언덕 절룩한 목중이를 타고, 넓게 퍼져 암벽을 곤두박질하는 우람한 물줄기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검푸르고 너른 못에 떨어지는 물줄기의 광음은 온통 땅을 들먹일 듯이 우렁쳤으나 이제는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기양서당(岐陽書堂)은 회현(樞軒) 유의손(柳義孫) 선생과 기봉(岐峯) 유복기(柳復起)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곳이다. 1615년에는 유복기가 서재로 건립하여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었다. 1716년에 후손들에 의해 서당으로 중창하였고, 그 후 추원사(追遠祠)를 세워 1780년에 유복기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1806년에 유의손의 위패를 추봉(追奉)하였다.



이우당 종택(二愚堂 宗宅)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이 건물은 안동권씨 부정공파 임치파 이우당(二愚堂) 권환(權奩)의 종택으로 조선 인조 18년(1640)에 건립한 것이다. 이 종택은 ‘口’자형 안채와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환 여사 시댁 근암고택(近庵古宅) 경북 구미시 해평면 수류길 44-27(일선리) 소재하고 있다. 조선 철종 때의 실학자로 <천례고증(典禮攷證)> 등을 저술한 근암 유치덕(近庵 柳致德, 1823~1881)이 고종 7년(1870)경 건축하였다고 한다. 원래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에 있었던 것을 1987년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그의 정자인 근암정과 함께 원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집은 ‘口’자형의 안채와 근암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흔 집이 합심하면/금강산도 논이 된다/무엇인들 어려울까/인간에도 모든 액을/낙동강에 씻었 부고/꿈을 안고 희망차게/제가 고향 찾아가자/이리 갈까 저리 갈까/아무리 좋다 해도/마음을 달래본다/조상 대대 물린 터를/일조일석 잊을 손가/천산 녹수 무한 풍경/자취 없이 사라진다/말 다 하면 무엇 하리/침침이 쌓인 소회/만권지도 부족하나/말 많으면 쓸 말 적어/이만하고 끝이 오니/보시 난 분양해하고/여외라고 생각 마소/병인년 선달도 마치

글 권오철 기자

정정보도

2021년 4월 1일자 종보 8면 기사 중 잘못된 보도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구분	정정 전(-을)	정정 후(-로)
머느리 권씨열전2 의(義)와 예(禮)의 선비 예안 김씨 김낙수의 처	요즈음 떠오르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경주김씨이고 예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요즈음 떠오르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경주이씨 이고 예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달실 마을은 500여 년 전 중종임금 때 권벌(權穰, 1478~1548년)선생이 기묘사화로 벼슬을 잃고 시골로 내려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몇 년 전 그 후손인 권헌조(權憲祖, 1930~2010, 검교공파 사복재계 시조 후 34세)	달실 마을은 500여 년 전 중종임금 때 권벌(權穰, 1478~1548년)선생이 기묘사화로 벼슬을 잃고 시골로 내려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몇 년 전 그 후손인 권헌조(權憲祖, 1930~2010, 검교공파 사복재계 시조 후 34세)	달실 마을은 500여 년 전 중종임금 때 권벌(權穰, 1478~1548년)선생이 기묘사화로 벼슬을 잃고 시골로 내려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몇 년 전 권헌조(權憲祖, 1930~2010, 검교공파 사복재계 시조 후 34세)